

한국 선교에서 지역 연구의 역사와 발전 과제*

마민호**

논문초록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한국 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선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반면에 선교 전략의 부재라는 평가를 늘 받아왔다. 이러한 선교 전략의 부재는 선교 현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선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인된 현상이다. 따라서 전략적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 현장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수적이다. 한국 선교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선교 대상 지역과 종족에 대한 연구와 조사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한국 선교 초기에는 오히려 선교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도출한 선교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나 이후 한국 선교가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오히려 선교 대상 지역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진 측면이 있었다.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전략적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재고되고 다시 선교 대상 지역과 대상 종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지역 연구의 상당한 진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교는 현장 선교사 개인의 선교적 통찰력이나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전히 선교 본부에서 현장 선교사를 위한 적절한 선교 정보나 선교 전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간 한국 선교계가 선교지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선교 현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인적 자원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교 지역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교 지역 연구를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과 신학교의 교수나 연구원들만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교 현장의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선교단체, 교단, 교회의 선교 관련 종사자, 그리고 이의 보급을 맡고 있는 언론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선교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선교 정보 생산기관과 기독교 기업, 기독교 법률가 단체, 기독교 NGO, 기독교 의료기관 등 모든 영역의 자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정보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을 연구하는 연구회나 학회, 그리고 학술 저널들의 발전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나아가 한국 선교계가 선교 지역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효과적인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선교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선교 정보 관련 기관과 2/3세계의 선교 정보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한국 선교 역사, 전략적 선교, 선교 지역 연구, 선교 정보 네트워크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동대학교 연구년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정치학 교수

2014년 11월 6일 접수, 12월 18일 최종수정, 2014년 12월 24일 게재확정

I. 도입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한국 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선교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여 국내적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 활동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하였다(한국일, 2004: 110).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수행한 결과 한국 교회는 국내적으로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반면 이러한 한국 선교계의 성과 이면에는 많은 취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를 평가할 때 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선교 전략의 부재’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한국 교회가 대단한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절한 선교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 개인의 선교적 통찰력이나 개인의 선교 전략에 주로 의존하고 선교본부에서 현장선교사를 위해 현장의 정보와 본부의 선교 신학, 선교 철학이 결합된 고급의 정보나 전략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그간 한국 선교계가 선교지역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선교 현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인적 자원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여기에 선교신학이나 선교 철학이 제대로 결합될 때 비로소 적절한 선교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향후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 세계 제 2위의 선교 강대국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교 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현장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 선교가 지금까지의 엄청난 성과 이면에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 실제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 지역 연구가 어떻게 진행 되어왔는가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한국 선교 지역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의 선교 지역 연구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선교와 선교 지역 연구

1. 한국 선교에서 선교 지역 연구의 중요성

현대 선교에서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선교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선교는 현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선교학은 다른 신학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현장을 더 염두에 둔 학문으로,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문상철, 2010: 8). 또한 그 실제에 있어서도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의 완성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온전한 다스림을 위해서는 다스림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앎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 대상 지역과 대상 종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일체의 선교 전략 수립은 곤란하며, 선교지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선교 사역을 위한 증보기도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대한 이해나 정보의 부족으로 현지 적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교 사역의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수많은 단기 선교 팀이 선교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남은 과업’에 대한 선교는 그 어느 때 보다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남은 선교 대상 지역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강한 지역이며(Resist Belt),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Yellow Window), 토착종교의 근본주의와 원리주의가 강한 지역,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이 민감한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유용한 선교 전략으로 제안되고 있는 전문인 선교(Professional Missions), 전방위 선교(Omni-directional Mission), 그리고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교 현장에 대한 실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교가 가지는 시대성은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의 선교 차원에서 경성 힘(hard power) 보다는 연성 힘(soft power)이 더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¹⁾ 한국 선교계가 현재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²⁾ 세계 2위의 선교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실

제 이에 상응하는 연성 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명실상부한 선교 강국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선교계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에 대한 바른 조사와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2. 선교 지역 연구³⁾의 의의와 범위

사전적 의미로 연구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따져 보는 일”⁴⁾ 이라 정의된다. 연구는 지식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활동이며 세상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인간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던 지식의 발견, 해석, 정정, 재확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인 조사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선교 연구란 선교의 모든 영역에 대한 탐구 활동을 의미하며 그 연구 주제는 모든 선교 활동 영역에 대한 선교 현장과 선교 본부의 전략과 구체적 사역,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보기도 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선교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나름대로 선교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선교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선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긴급한 현장의 필요나 행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제한적인 조사와 연구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국내 신학교를 중심으로 선교사와 목회자의 학위 과정을 통한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선교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선교 사역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선교 지역 연구는 특별히 선교 현장에 초점을 둔 선교 연구의 한 영역으

1) 국제정치에서 강대국(super power)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국토면적, 인구수, 군대 규모로 평가되는 경성 힘(hard power)이 중요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술, 지식과 정보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연성 힘(soft power)을 가져야 한다.

2) 2012년 1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제22차 정기총회에서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가 168개국에 23,331명(2011년 12월 기준)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http://www.missionews.kr> (검색일 2014.2.5)

3) 한국 선교계에서 ‘선교 지역 연구’라는 용어는 ‘선교적 관점에서의 지역 연구’, ‘선교 현장 리서치’, ‘선교 R&D’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교 지역 연구를 선교적 관점에서 행하고 있는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연구 03을 참조할 것.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검색일 2013.04.09.)

로, 선교 대상인 지역과 종족의 실체성과 종합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 선교를 위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연구 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선교 지역 연구는 크게 선교 연구의 한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실제 선교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분야이므로 상황에 따라 선교 연구와 선교 지역 연구는 중첩되는 연구 영역을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능한 일반적인 선교 연구와 선교 현장에 주된 관심을 갖는 선교 지역 연구를 분명하게 구별하려 하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선교 지역 연구는 20세기 중반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역 연구(Area Studies)를 선교적 관점에서 응용한 연구 분야이다. 지역 연구는 정책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국제정치의 강대국이 되면서 외교 및 군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발달시킨 학문 영역이다⁵⁾. 또 학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분과학문(discipline)이 가지는 ‘과편성’⁶⁾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위의 ‘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 단위인 ‘지역’에 대한 종합성과 실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영역이다.⁷⁾ 지역 연구가 국제 정치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하여 ‘타자(otherness)’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것처럼, 선교 지역 연구는 영적인 세계 경영을 위하여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의 실체성과 종합성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선교 전략이나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목적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확실성(certainty)의 증대와 이렇게 발견된 새로운 지식활용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선교 지역 연구도 선교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이것들을 선교적 목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과 정보의 관리와 공유,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포함하는 연구 영역이다. 따라서 한국 선교 지역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교를 거시적 관점으로 보고 선교 지역 연구를 통

-
- 5) 지역 연구는 식민지 시대에 서구 제국이 식민지 경영을 위해 발전시킨 연구 분야이나, 20세기 중반에 세계의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미국의 세계 경영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된 연구 영역이다.
- 6) ‘분과학문의 과편성’은 분과학문이 너무 세분화 되면서 실제 학문이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주제의 실체성과 종합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부분만을 설명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다.
- 7) 지역연구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는 김준형 편(2004), 『세계화의 현상과 대응』, (서울: 일신사) 중에 마민호의 “세계화와 지역, 지역연구.” 부분을 참조하라.

해 고급의 정보와 전략이 도출되는 네 가지 과정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는 선교 현장으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대상 지역과 사람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정보생산 기능으로, 선교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들이 대학이나 전문 연구 기관 등의 정보 생산 기관에 의해 맥락적 정보들과 통합되어 고급의 정보로 가공되는 단계이다. 셋째는 이렇게 생산된 고급의 정보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일반인들에 전달되거나, 특별히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관에게 배달되는 보급기능이다. 넷째는 이러한 정보들을 교회나 선교단체, 중보기도 단체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고 활용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 중 선교 지역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현장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속적인 데이터와 정보의 유입이다. 만약 이러한 정보의 유입이 없다면 선교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 리서치를 수행하는 리서치 선교사나 선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선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2만 여명이 넘는 한국인 선교사 중에 체계적으로 리서치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의 남침례 교단의 선교부(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이하 IMB로 표기)의 리서치 기능을 담당하는 글로벌 리서치(Global Research)팀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5천여 명의 선교사들로부터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선교 현장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⁸⁾

III. 한국 선교의 선교 지역 연구 역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복음을 수용한 이래 처음부터 민족 복음화와 해외 선교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열심히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임 없이 선교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흔적과 그 의미

8) IMB(2014), "Global Statu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Global Research를 참조 하라.
http://public.imb.org/globalresearch/Documents/GSECOverviews/2014-04_GSEC_Overview.pdf.
 (검색일 2014.05.28.)

들을 찾음과 동시에 아쉬움으로 남는 한계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국 선교역사 속에서 선교 지역 연구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기적 구분이 필요하다. 선교 지역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 선교역사는 크게 1990년을 기점으로 전후를 나눌 수 있는데, 선교 정보의 필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한국 교회의 시도가 이 때 부터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1990년 이전의 한국 선교에서 지역과 종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외부 정보를 활용하여 왔던 기록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보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생산하지는 않았어도 외부에서 생산된 정보를 적용하여 전략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선교 정보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유효한 활동으로 보고, ‘선교 지역 연구’의 개념을 정보의 자체적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한국 선교 역사의 시기 구분은 일반적 분류⁹⁾에 따라 개척기(1907-1937), 침체기(1938-1963), 각성기(1964-1980), 확장기(1981-1990) 와 그리고 선교 지역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의 시기로 다섯 시기¹⁰⁾로 구분하도록 한다.

1. 선교 개척기(1907-1937) 의 선교 지역 연구

선교 개척기 시대 한국 교회의 선교활동은 대부분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선교 활동에 있어 문화적, 민족적 장벽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나 연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1913년 이후 시작된 산동성 선교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해방 이전 한국 선교는 해외 선교라기보다는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사역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황홍렬, 2001: 268). 중국, 일본, 하와이, 남미 등에 흩어져 있던 한인 공동체에 대한 선교는 1907년 한반도를 휩쓴 부흥의 물결을 확산시켜 나가는 첫 관문이었

9) 한국 선교 역사의 시기 구분에 대하여는 강승삼(2006), “한국장로교회 해외 선교의 역사적, 선교 정책적 분석연구” 『신학지남』을 참고하라.

10) 193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한 시점을 침체기의 시작으로 보았고, 장로교는 “백만신도부흥운동 10개년 계획”을 결의한 1964년부터 1980년까지 해외 선교를 재개하는 각성기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 새마을 운동, 경제성장, 여행 자유화를 맞은 1980년대를 한국 선교의 확장기로 분류하고 있다.

다.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1907년 조선 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파송된 이기풍 목사를 꼽는다. 이기풍 목사는 ‘한국 교회의 오순절 사건’이라 불리는 1907년의 대부흥운동 이후 세워진 7명의 목사 중 1인으로 장로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독노회가 왜 제주도를 파송지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해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고 교통 환경이 좋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였던 요소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08년에 감리교에서 북간도로 파송한 이화춘 전도사, 1909년 장로교에서 도쿄로 파송한 한석진 목사, 블라디보스토크로 파송한 최관흠 목사는 해외의 한인 거주 지역 파송을 우선시하는 교단의 정책 하에 있었다. 한국 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에 먼저 참여하게 된 것에는 타언어와 타문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한계와 한인 밀집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정보의 부재, 한인들의 사역자 파송 요청, 한국 교회의 동포에 대한 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화와 언어가 유사한 한인 디아스포라를 선교 대상으로 하는 이시기의 선교 활동에서 한국 교회는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선교 지역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1913년에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공식 선교지를 중국 산둥 지역으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타문화권 타국인 대상의 선교사로 파송한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의 사례이다(채은수, 1984: 179). 1913년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앞서 1912년 장로교 총회는 김찬성 목사를 미리 산둥으로 보내 선교 후보지를 답사하게 하였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 134). 이는 당시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대상지들과는 다르게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없어 아무런 정보가 유입되지 않았던 산둥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의 필요를 교단 차원에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가 타문화권 선교를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현지의 정보에 기초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였다는 것은 ‘선교 지역 연구의 효시’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된 산둥 선교는 여러 가지 교훈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선교사들은 산둥으로 건너가서 한국 교회의 소속으로 사역하지 않고, 중국 장로교단에 소속이 되어 중국 교회를 개척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중국 교회로 소속을 옮겨 활동한 것은 이미 산둥에 있는 자생적 교회를 돕는 의미에서 중국 장로교와의 마찰을 피하고 안정적인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였다(김남식 2002: 217). 이것은 중국 산둥 지

역의 종교와 교회 현황에 대한 선행된 연구를 토대로 준비된 전략이었다. 선교 지역 정보에 근거한 산동 선교 전략은 현지 교회와 마찰이 없는 성공적인 사역으로 이어졌다. 이 후로도 여러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나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이 역시 주류를 이루었고, 산동 선교는 지속적인 후원과 인력 파송으로 성과 있게 이어져 오다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종교 탄압이 심해진 1957년 방지일 목사가 공산당에 의해 추방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김종남, 2010: 5).

그러나 여전히 이 시기의 한국 선교계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선교 지역 연구나 선교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2. 선교 침체기(1938-1963)의 선교 지역 연구

1938년을 기점으로 선교 침체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1938년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평양신학교가 폐교되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 역량이 잠재적 정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강승삼, 2006: 117). 또한 해방 후 10년 이상 한국 교회는 연속적으로 분열을 겪으며 선교사 파송을 위한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몇몇 선교활동 사례를 통해 초보적인 선교 지역 연구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195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태국 CCT 교단과의 협약 이행으로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를 태국으로, 1958년 고신 선교부는 미국정통장로교(OPC)의 제안을 통해 김영진 목사를 대만으로(김남식, 2002: 227), 1960년 감리교 총리원은 이화여대와 함께 당시 파키스탄 연합교회 감독의 공식 선교사를 초청에 따라 전재욱 선교사를 파키스탄으로 파송하게 된다(전재욱, 2001: 337). 이상의 세 건의 사례의 공통점은 선교사의 파송이 해외 교단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해외 교단과의 교류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은 현지 교단과 교류하고 협력하려는 바람직한 선교 철학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 선교가 아직 선교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선교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교단의 전략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미약하나마, 한국 교회가 해외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초적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선교 지역 연구는 이전의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사역을 넘어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는 발전적이었으나 아직 자체적인 정보의 수집과 생산에 의해 도출된 전략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 기관의 정보에 의존한 파송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3. 선교 각성기(1964-1980)의 선교 지역 연구

선교 각성기는 한국 교회의 분열 이후 다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이다. 1964년 장로교는 ‘백만신도부흥운동 10개 년 계획’을 결의하고 1966년 채은수 선교사를 대만으로 파송하면서 이러한 의지를 표현하였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국내에는 올바르게 갖춰진 선교 훈련이나 선교 현장의 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1965년 조동진 박사에 의해 KIM(Korea International Mission, 이하 KIM으로 표기)이 설립되면서부터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한 선교훈련이 시작되었다(박용규, 1999: 204). 조 박사는 미국 에즈베리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 선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당시 KIM을 통해 한국 교회에 제공된 정보는 주로 서양의 부족선교(tribal mission) 정보가 주축을 이루었다. KIM의 활동은 1975년 동서선교정보센터(East-West Center for Missions and Research & Development)의 설립 시도로 이어졌고, 비록 시도에 그쳤으나 한국 교회에 선교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해 주었다.¹²⁾ 조 박사는 당시 한국에서 제 3세계 사역자에 의한 제 3세계 선교가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리가 생산한 현장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형 선교 전략이 나올 수 없었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목표는 좌절 되었다. 당시 이러한 주장이 적극적으로 확산되어 각 선교 주체들의 선교 훈련에 대한, 선교 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더라면 한국 선교에서 선교

11) 선교 각성기의 선교 활동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1회 장로교총회회의록’(1966), 58쪽을 참고하라.

12) KIM과 조동진 목사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는 David J. Cho(2012), *The Mission - innovation from Westernization to De-Westernization and then Globalization, Euiwang*; East-West Center for Missions and Research & Development를 참조하라.

지역 연구가 크게 활성화 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한국 선교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 시기 한국 교회는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되는데 새마을 운동, 경제 성장, 복음화 운동 등의 요인과 더불어 강력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70년대 한국 교회는 복음화 운동의 시대로 1973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74년 엑스플로74¹³⁾대회와 학생 선교 단체들의 캠퍼스 성경 공부 운동, 1977년 민족 복음화 성회 등의 흐름은 한국 교회에 활력을 더하여 해외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 한국 선교의 구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전의 교단 선교부 중심의 해외 선교를 초월하는 초교파적 선교 운동이 일어나 한국 선교에 엄청난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OMF(Overseas Missionaries Fellowship, 이하 OMF로 표기), OM(Operation Mobilisation), SIM(Sudan Inland Mission)등과 같은 전문선교단체들이 국내에 지부를 두고 국내 선교사를 영입하였고, CCC(Christian Campus Crusade, 이하 CCC로 표기),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이하 IVF로 표기), JOY(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and spell JOY!) 등의 초교파 단체들의 활동이 교단의 그것보다 크게 팽창하였다(박용규, 1999: 206). 초교파 선교단체들은 선교 전문화와 전략화를 추구한 반면, 교단 선교부는 여전히 목회자 중심으로 문이 좁았고 선교 정책이 미흡했다. 당시 한국에 정착한 해외 선교단체들의 지부들을 통해 새로운 선교 정보와 지식들이 유입 되었고, 이후로 서구 교회와 단체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한국 선교의 새로운 체질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으나 아직까지 스스로 선교 지역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교 정보를 생산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이렇듯 한국 선교의 기반이었던 교단 선교부에 의한 활동들은 시대 변화에 동류하지 못하므로, 개교회 및 선교 단체가 직접적으로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전의 교단 중심 선교 구조는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박용규, 1999: 209). 따라서 선교 지역 연구라는 과제도 자연스럽게 선교단체와 이후에 등장하게 될 선교 협의체가 감당해야할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교단 선교부에서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시기에 선교 지역 연구라는 과제가

13) ‘엑스플로74’는 김준곤 등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주최하여 여의도 광장에서 5박 6일 동안 ‘성시화, 복음화’의 주제로 집회와 노방전도, 철야기도회로 이루어졌는데 연인원 6백 55만 명을 동원, 결신자 27만 명을 얻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주체들에게 맡겨진 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의 선교 지식과 선교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도 이후 한국 선교 지역 연구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선교 확장기(1981-1990)의 선교 지역 연구

한국 선교 사역의 본격적 확장을 맞게 되는 1980년대에도 여전히 선교 지역 연구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지역에 대한 정보나 전략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송된 한인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예장 선교부에서 파송한 가정 중 83.5%가 중도 탈락하였다(강승삼, 2006:127). 이러한 결과는 선교사 개인의 선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헌신의 부족이라는 이유와 함께 선교 본부의 선교사 훈련, 관리와 지원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선교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선교 정보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선교의 상황을 반성하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서구 교회의 선교 시스템을 모델로 한 초교파적 움직임이 일어나 1987년 한국 세계 선교회가 탄생하였다. 이어서 OMF와 WBT(Wycliffe Bible Translators)와 같은 외국 선교 단체의 한국 지부 사역이 한국 교회 내 활성화되었으며 호프선교회(1989), GPTI(Global Professional's Training Institute, 1991)등의 전문적인 선교 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협력 선교를 계기로 교회가 선교 단체의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¹⁴⁾ 1989년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선교 주체가 학생과 청년 세대, 전문 직장인으로 이전되는 평신도 선교사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선교 지역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선교가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결국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집중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선교 차원의 전략적 선교와 네트워크는 더욱 어려워졌다. 선교 인력 동원과 활동은 확장되는 시기였지만,

14) 한국 선교 단체들의 전문적인 선교 지역 정보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바울(2008), “지난 25년의 한국 선교 전략 평가”, 『2008 한국 선교지도자포럼 핸드북』을 참고하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 선교는 다소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한국 교회와 선교계의 몇몇 지도자들은 교단 선교부와 초교과 선교 단체들을 아우르는 연합체를 조직하여 전문적이고 방향성 있는 선교를 지향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1990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이하 KWMA로 표기)를 조직하게 되었다.¹⁵⁾ KWMA를 통해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 연구를 위한 조직이나 연합체를 갖추기에는 시기상조였다.

한편 이 시기 주요 신학교들의 선교 지역 연구 관련 논문 현황¹⁶⁾을 살펴보면 장신대의 경우는 1981년부터 1990년 까지 선교 관련 논문 96편중 해외 선교는 12개로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선교 지역 연구 관련 논문은 4편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신대의 경우는 같은 시기 28편의 선교관련 논문 중 해외 선교는 3편으로 10.7%이며 이 중 선교 지역 연구 관련은 1편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고신대의 경우는 같은 시기 16편의 선교관련 논문 중 4편이 해외 선교 관련 논문으로 25%를 차지하고 이 중 선교 지역 연구 관련 논문은 1편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아신대의 경우는 112편의 선교관련 논문 중 해외관련 54편으로 48.2%를 차지하고 이중 선교 지역 연구 관련 논문은 5편으로 전체의 4.5%에 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해외 선교와 선교 지역 연구 관련 논문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한국의 초교과 선교 연합 운동에 관하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www.kwma.org> (검색일 2013. 05.04)

16) 주요 신학교들의 석박사 학위논문 중 선교 지역 연구와 관련된 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주요 신학대학원의 전자 도서관 검색에서 선교 관련 논문 목록을 확인 하고 이 중 해외 선교 관련된 논문의 편수를 확인하고 이 중 다시 종족과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 선교 지역 관련 논문의 편수를 비율로 확인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선교 개척기와 침체기, 각성기까지의 자료는 확인 할 수가 없었고 1981년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을 밝혀 둔다. 아울러 논문의 목록을 가지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일부 통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장신대 전자도서관 : <http://library.pcts.ac.kr/>, 총신대 전자도서관: <http://lib.chongshin.ac.kr/>, 고신대 전자도서관:<http://library.kosin.ac.kr/>, 합신대 전자도서관:<http://www.hapdong-lib.ac.kr/>, 아신대 전자도서관:<http://lib.acts.ac.kr/> 참조)

5. 1990년대 이후의 선교 지역 연구

GMF의 활동과 KWMA의 출범 등 규모 있는 선교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태동함에 따라 실제로 한국에서 본격적인 선교 지역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에 들어서면서였다. 1990년 GMF 산하에 설립된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s, 이하 KRIM으로 표기)은 한국에서 선교 연구를 위해 세워진 최초의 기관으로 각종 외국 서적의 번역과 현장 정보의 수집과 배포, 현장 리서치 훈련 제공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모습을 갖추었다(문상철, 2014: 5). 비록 GMF 산하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다소 제한되었지만, 한국선교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존재는 한국 선교 연구의 발전에 촉진제가 되었다. 1993년에는 KWMA 산하에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 Adopt A Nation 이하 AAP로 표기)가 설립되었다. AAP는 현장 리서치를 통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추진하며 국내 선교 지역 연구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1999년에는 훈련원과 정보원 등을 개설하며 전문적인 선교 연구 및 선교 리서치 훈련 기관으로 발전하여 UPMA(Unreached Peoples Missions Alliance, 이하 UPMA로 표기)로 개칭되었다(UPMA, 2005: 8). UPMA는 KWMA의 정보 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선교 지역 연구와 리서치를 활성화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선교 협의체들의 연구 활동에 자극을 받은 선교 단체들은 단체의 목표 성취와 선교사 파송에 대한 저마다의 전략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교 연구 부서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꼈다. 전문인 국제 협력단(Inter-CP)의 경우 훈련 과정에 ‘지역연구스쿨’을 개설하고 지역 연구 방법론과 리서치 실습 등을 교육하였고 2006년에 설립된 ‘한반도 국제 대학원(Kore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을 통하여 실제 선교와 지역 연구를 연계한 선교단체로 자리매김을 시도하였다(조덕형, 2004: 44-49). 예수전도단(YWAM; Youth Whit A Mission)은 따로 선교연구 부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800여 개의 국제예수전도단 지부들을 통해 타겟 지역과 종족에 대한 정보를 관리, 공유하고 전방 사역자와 후방 중보자에 순환시킨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¹⁷⁾ 이후 선교 지역 연구를 선교 전략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단체들도 나타났다. 중국대학선교회(China University

17) 예수전도단의 해외 선교 정보 활용과 중보 기도 자료 활용에 대하여는 예수전도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http://www.ywamkorea.org>.(검색일 2013. 05.07)

Missions)는 관문도시(City) - 거점대학(University) - 대상종족(People)에 대한 지역연구라는 ‘CUP’ 모델을 만들어 활발한 연구와 선교 사역을 병행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이우윤, 2007: 18). 또 두란노해외 선교회(Tyranno International Ministries)는 2009년, 1기 안식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이하 CIAS)와 협력하여 ‘리서치 선교사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였고,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청년전방개척선교사 16명을 선발, 프론티어 지역에 리서치만을 위한 선교사로 훈련하여 파송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¹⁸⁾

이후 교단 선교부 안에서도 선교연구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의 경우 1998년 선교국이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이하 GMS)라는 독립 선교부로 분리되면서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사역을 전개해나가고 있다(채홍범, 2002: 79-85). GMS 선교연구소는 1999년 정보연구실로 출범하여 동·서양 선교 정보와 자원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기관간의 연계를 추구해 왔으며 한국 FTT(Finishing The Task, 이하 FTT)운동¹⁹⁾의 거점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의 경우에도 교단 선교부의 5대 사역 중 하나로 연구를 설정하고 선교현지 정보와 사역 전략의 연구개발 및 지역교회를 위한 선교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하부에 선교정보연구소를 두고 UPMA, KRIM, GBT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한예수교장로교 통합은 미전도 종족 선교 위한 훈련, 선교 집중 지역 선정, 선교 현장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선교 지역 연구에 관심을 나타냈고(박영환, 2006: 247-280)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는 미전도 종족 정탐 훈련을 실행하고 있다. 성결교단 역시 선교 정책, 전략 연구 개발 및 선교 전문 인력 양성 추진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선교연구 전문위원을 양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박영환, 2006: 345-386).

18) 두란노 해외 선교회의 선교 지역 연구 관련 활동에 대하여는 TIM 홈페이지와 마민호(2009),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한계와 극복 방안”, 『제2회 선교리서치대회 자료집』을 참고하라.

<http://tim.or.kr>(검색일 2013. 05.08)

19) 2000년 암스테르담 대회 당시 선교단체 지도자(122개국, 520명의 선교 전략가)들이 모여 “세계 복음화의 성취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회장 71번 테이블에 CCC, YWAM, IMB, 위클리프 등의 선교단체 총재들이 함께 앉게 되었다. 그 이후 이 그룹은 “테이블-71”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4회씩 함께 만나 사역을 논의 하였고, 2004년 가을에 “Finishing The Task”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고 있던 교회들 안에서도 선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별히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선교연구를 소화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단체나 전문 연구소와 협력하게 된 것은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초보적 단계로 의미 있는 변화였다. 창원 가음정교회는 1994년부터 AAP와 협력하여 이미 여러 종족을 입양하여 교회가 단독의 정보 범위 내에서 선교하던 전통적인 방식에 신선한 자극을 가져왔다. 울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1999년 조직되어 종족 입양 선교 전략 연구 및 지역 정탐에 대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요람교회가 2008년과 2009년 CIAS와 1, 2차 한국 선교리서치대회를 협력하며 선교 연구에 대한 관심을 보여 오다가 이후로 선교 정탐학교를 개설하고 훈련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도 한국 교회들의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 증대를 보여 주는 일례다.²⁰⁾

1990년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선교 협력 주체가 있다면 대학과 선교 연구소일 것이다. 대학과 선교 연구소는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는 않지만 전문적 연구와 고급 인력 양성에 집중하며 한국 선교 지역 연구의 양질화에 기여하였다. 총신대학교선교연구소는 1985년의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저널 발간과 세미나 등의 활동을 지속해왔다. 침신대학교도 1994년부터 세계 선교훈련원을 가동하며 선교 정보의 수집과 더불어 선교 전략을 연구해왔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는 부설 기관으로 신학연구소와 세계 지역 연구소, 북한연구원을 두어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²¹⁾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CIAS)는 1998년을 시작으로 학제적인 지역연구를 통하여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전으로 연 2회 선교 지역 연구보고서 등의 출판물을 간행, 학계와 교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교회, 선교단체들을 위한 리서치 선교사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²²⁾ 특별히 2008년부터 한

20) 한국 지역 교회들의 선교 지역 연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민호(2009),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한계와 극복 방안”, 『제2회 선교리서치대회 자료집』을 참고하라.

21) <http://www.acts.ac.kr/design/index.asp>. (검색일 2014.04.21.)

22)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Handong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는 국제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실체성을 소개하고 한국의 지역연구 발전에 기여하며 각종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적 발전과 역내의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교내적으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연구소가 학생들의 이론적, 실천적 연구의 장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이 대학교의 학술연구 능력의 향상과 실질적인 국제화프로그램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www.handong.edu (검색일 2014.05.31.)

국 선교 리서치 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선교 연구 기관들의 연합과 선교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아 오고 있다.

이 시기에는 특정 지역과 대상을 위한 선교 연구소들도 생겨났다. 1992년부터 시작된 한국이슬람연구소는 여러 편의 저서와 저널, 소식지를 발간하여 선교 정보를 생산하고 있고, 한국이스라엘성경연구소(KIBI, Korea Israel Bible Institute)는 1994년 설립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실제 사역과 연구를 병행해오고 있으며, 1998년 시작된 동남아선교 정보센터는 뉴스레터의 발행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유, 동남아 선교사 후보생과 교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연구소들의 운영은 대학 연구소와 함께 그간 전문성과 현장성이 부족했던 한국 선교 지역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밖에도 기도24·365,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와 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국내 중보기도 단체들은 선교 현장의 소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 교회에 기도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CTS기독교 TV, CGNTV와 같은 언론기관도 선교 지역의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미디어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선교 대학원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중 선교 지역 연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장신대의 경우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선교관련 538편의 논문 중 해외 선교 관련은 78편으로 14.4%를 차지하고 이 중 선교 관련 논문은 23편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총신대의 경우는 같은 시기 579편의 선교관련 논문 중 해외 선교는 119편으로 20.5%이며 이 중 선교 지역 연구 관련은 34편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합신대의 경우는 127편의 선교관련 논문 중 54편이 해외 선교로 42.5%를 차지하고 이 중 선교 지역 연구 관련은 13편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고신대의 경우는 같은 시기 134편의 선교관련 논문 중 32편이 해외 선교 관련 논문으로 23.8%를 차지하고 이 중 선교 지역 연구 관련은 6편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아신대의 경우는 226편의 선교관련 논문 중 해외관련 108편으로 47.7%를 차지하고 이중 선교 지역 연구 관련 논문은 23편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 상대적으로 해외 선교와 선교 지역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아신대의 경우는 학교의 성격상 해외 선교와 선교 지역 연구 관련 논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IV. 한국 선교의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평가와 발전 과제

지금까지 한국 선교에 있어서 선교 지역 연구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제 는 지금까지 선교 지역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 한국의 선교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 선교의 선교 지역 연구 성과와 한계

(1)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인식 부족

한국 선교 초기에는 선교 정보의 생산보다는 선교 정보의 활용이 중심이었다. 미약한 수준이었을지라도 세계 각지로 흩어져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외국 단체, 교단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선교를 열어가던 이 시기는 한국 교회가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정보 활용 기관으로 참여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팽창한 한국 선교의 규모와, 세계 선교 상황의 변화, 복잡해진 선교 현장의 상황을 볼 때 더욱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력이 보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선교 정보가 한 단계 더 집중, 공유되고 세계의 선교 정보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NCOWE-IV 대회에서는 향후 한국 선교가 발전시켜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가 선정되어 선교 정보 네트워크가 더 이상 한 두 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한국 선교계의 공동 과제임을 선언하였고,²³⁾ 2008년부터 한국 선교 리서치 대회가 개최되면서 선교 지역 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의 연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제 2회 선교 리서치 대회 이후로 KWMA가 이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관련된 단체의 연합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인 선교 정보 단체인 여호수아프로젝트팀과 IMB 등의 단체와 연합하며 국제적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이뤘 나가기 위한

23) 남원준(2006), “선교전략회의(NCOWE-IV) 결산”, 『교회연합신문』.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39178> (검색일 2014. 05. 05).

시도들도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MS가 국제적인 선교 운동인 FTT운동의 한국 거점기관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선교 방향에 한국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고, KWMA가 USCWM (United States Center for World Mission, 이하 USCWM으로 표기) 와 논점을 같이 하는 KJFM을 발행하며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동반자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

선교 정보 네트워크는 정보의 집중을 통해 고급의 정보 생산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위한 거시적인 시스템이 없어 한국 선교 지역 연구를 이끌고 있는 주체들이 개별 기관 내부에 작은 선교 정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고 협력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 정보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별 선교 정보 네트워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편협하고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어려워 선교계 전체의 활발한 정보 흐름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실제적 움직임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보가 수집되려면 현장 선교사와 파송기관, 선교 지역 연구소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파송기관의 정책상 선교사의 이중소속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력이 어렵고, 또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교회들이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국 선교의 모든 주체가 함께 협력하며 만들어가는 선교 정보 네트워크 형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 교계와 선교계에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국 선교는 한국 선교 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해외 선교 정보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 선교 지역 연구의 전문 인력

한국에 전문적인 선교 지역 연구 훈련들이 생겨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KRIM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교 지역 연구 전문 훈련 프로그램인 캠프여호수아(Camp Joshua)를 시작하였다. 타문화권 체험과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캠프여호수아는 GPTI의 훈련 커리큘럼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한국에

선교 지역 연구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AAP가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현지 조사방법론과 실제적인 툴을 보충하여 1994년부터 선교정탐훈련원(METI)을 운영한바,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훈련생을 배출하였고 한층 더 전문적인 리서치 과정으로 SIREN(Strategic Information Research Network) 선교사 훈련을 개설하여 선교 지역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로 다양한 선교 주체들이 선교 지역 연구 훈련을 실행하게 되었다. 선교 지역 연구 전문 기관으로 1998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CIAS는 선교 지역 연구를 핵심 가치로 하는 4단계 훈련을 개설하였고,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전문가 과정’을 제공하여 선교 지역 연구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전문 선교 지역 연구 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선교단체와 교회들 사이에서도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과정을 선교 훈련 커리큘럼에 반영하거나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선교 지역 연구 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인터콥의 해외 지역 연구 스쿨이나 TIM의 청년 전망개척선교사 훈련, 오름교회의 선교정탐훈련학교 등은 선교 지역 연구 훈련이 한국 선교 저변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역 연구 훈련을 국내 전문 기관에 요청하거나, 해당 지역 선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선교 지역 연구를 진행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중국의 한인 선교사들로 구성된 ‘미전도종족선교협의회’는 비효율적 사역의 원인을 선교 지역 리서치의 부족으로 판단하고 선교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합 모임을 구성하여 선교 지역 연구에 착수하였다.

여러 경로를 통해 선교 지역 연구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선교 지역 연구 훈련이 다양화되면서 드러난 문제점도 없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교 지역 연구 훈련은 각 훈련 기관의 연구 경향과 목적에 따라 교육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서로 크게 다르다. 따라서 리서치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교 지역 연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선교 지역 연구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격하게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교회와 단체의 참여 부족으로 몇몇 훈련 프로그램이 도중에 중단되고 있다는 것과 선교 지역 연구 훈련이 일회성 훈련으로 끝나 버리고 현장에 파송한 이후 관리와 연구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중요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 선교 지역 연구가 고급화되기 위해서는 고급의 선교 지역 연구 인력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3) 선교 지역 정보 및 지식의 생산

선교 지역 연구를 선교 지역 정보의 생산·관리·공유·적용의 과정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정보 생산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거 한국 교회는 선교 지역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지만, 최근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선교 지역 정보의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의 범주는 그리 크지 않았고 정보의 생산 활동도 더디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선교 현장에서 총체적 선교, 지역 사회 개발 등 선교 현장의 영, 혼, 육에 대한 통전적 회복을 추구하는 선교 방향과, 대상 종족의 문화에 맞는 상황화된 교회 개척과 성경번역을 위한 선교사역이 확산되면서 각각의 선교 사역 분야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기독교 대학이나 기독교 전문 연구 기관은 이보다 더 넓은 영역에 대하여 학제적 선교 지역 연구를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 개별 교단이나 단체들은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정도의 조사와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대학이나 전문 연구 기관은 선교 현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대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통찰을 가능하게 돕는 광범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 기관은 현장의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와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넘어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학문 분과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학제간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²⁴⁾ 개별 단체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선교 정보 및 지식의 생산에 있어 대학과 전문 연구 기관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 단계 더 고급화된 선교 정보와 지식의 생산을 위해서 정보 생산 주체들이 극복해야 할 몇몇 한계점들이 있다. 먼저 정보 생산 역량을 갖춘 선교 지역 연구자를 확

24) 한국 선교의 문제점과 선교 지역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바울(2008), “지난 25년의 한국 선교 전략 평가”, 『2008 한국 선교지도자포럼 핸드북』을 참고하라.

보하기가 어렵고, 연구자가 현장 장기 거주자가 아닌 경우 조사 기간상의 문제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통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표성을 가진 조사 표본을 선정하기 어려운 한계, 그리고 연구자가 교육 받은 특정 연구 방법의 한계 등 다양한 숙제를 안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문상철, 2010: 12-14).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하고 선교 지역 정보와 지식의 생산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국 선교가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 선교 지역 연구의 역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 선교대학원의 논문 중 지역 연구 관련 논문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선교 단체나 교단의 입장에서 현장 선교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의 공급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4) 선교 지역 정보 및 지식의 관리와 공유

선교 정보의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선교 정보의 관리와 공유 문제이다. 정보의 관리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동일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중복 생산되거나, 큰 비용을 투자하여 생산한 정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에 정보의 관리와 공유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은 없다. 선교 정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는 그나마 자신들만의 정보 관리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여전히 자료 형태로 묶어 서류함에 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전산화 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또한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로의 접근이 편리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영철, 2010: 42-43).

이에 대하여는 서구의 사례를 보면, 미국 남침례교선교부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에 대한 필요를 일찍 느끼고 설립연도인 1845년부터 있었던 편지를 비롯한 방대한 양의 문서자료들을 모두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을 원활하게 관리 및 공유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사(MS)의 아웃룩(outlook)과 연동하도록 개발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조대연·소성호, 2009: 50). USCWM의 경우에도 30년 동안 수집된 모든 정보들을

PDF 파일로 저장하고 있으며 최근 각각의 분과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조대연·소성호, 2009: 35). 이것은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생산만큼이나 관리와 공유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보의 관리와 공유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관리 방식은 결국 공유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정보의 관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정보의 공유 방식은 컨퍼런스 및 세미나의 개최, 저널의 발간, 보고서의 출판, 홈페이지의 구축, 포털사이트의 운영이나 라디오, TV 방송 등이다. 어떤 형태이든지 정보의 공유는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이 중요하다. 고급 정보들이 선교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에서 나누어지지만 대회에서 논의 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회 이후 한국 교회에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수요자가 접근이 어려운 형태로 공유해서는 정보가 제대로 전파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한 예로, 최근 기독교TV CTS와 KWMA는 선교 현장과 본부, 국내 선교 이슈와 및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한 후 방송프로그램화, 웹진 및 웹 페이지화 하여 한국 교회와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언론기관과 선교 협의체가 협력하는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 선교 지역 정보 및 지식의 활용

현장에 대한 정보는 궁극적으로 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CHE선교회(Community Health Evangelism, 이하 CHE로 표기)나 통합선교연구소 IBCD(Institute for Biblical Community Development, 이하 IBCD로 표기) 등은 총체적 선교와 관련한 연구 방법과 기술을 통해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성경번역선교회 GBT(Global Bible Translators, 이하 GBT로 표기)의 경우에도 지역과 종족, 언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생산된 정보들을 성경 번역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선교사역에 활용하는 기관들은 실제로 성공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창업과 이와 병행하는 선교사역을 개발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사역에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정보의 활용자 입장에서 현장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는 시도이다.

선교 지역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선교 현장에 적합한 선교 전략을 고안하는 것이지만, 정보의 중요도와 시급성, 형태와 활용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선교 현장에서 온 기도 편지나 현장 상황을 알리는 보도 등은 중보 기도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활용은 정보의 시급성에 기초하여 별다른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는 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 현장에서 가져온 사진과 영상 자료는 목적에 따라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개한 것 외에도 정보는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한국 선교 정보들이 출판 간행물, 웹사이트나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활용이 확장되고 있다.

선교 지역 정보와 지식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단체, 개인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정보들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와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앞서 선교 정보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 소개하였다. 또한 정보에 근거한 선교사역의 성공사례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 이러한 절차를 통한 선교사역이 유용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현장에 대한 선교 정보는 선교 전략으로 활용된다.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선교 전략은 상대적으로 좋은 사역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CHE나 IBCD 등은 총체적 선교와 관련한 연구 방법과 기술을 통해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고 있으며 성경번역선교회(GBT)의 경우에도 지역과 종족, 언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생산된 정보들을 성경번역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미션(BAM)은 실제로 성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창업과 이와 병행하는 선교 사역을 개발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사역에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정보의 활용자 입장에서 현장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 및 활용하고 있는 시도들을 보여 주고 있다.

2. 한국 선교의 선교 지역 연구 발전 과제

(1) 한국 선교 지역 연구 인프라 확장과 연구 시스템 구축

1990년까지 선교 지역 연구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한국 선교에 지난 1990년대 이후 20년간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면, 앞으로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필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선교 지역 연구를 이끌어가기 위한 인프라와 핵심 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선교 지역 연구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들이 많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선교 지역 연구의 경험과 노하우를 결집할 체계적인 선교 지역 연구 시스템이 없어 현존하는 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 신학교, 선교 연구소 등 전문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선교 연구 관련 학회를 설립하여 정기적인 선교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이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 결과를 학회지, 혹은 연구 저널로 발간하는 등의 학술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연합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KWMA 산하에 선교 지역 연구와 관련된 단체들의 연합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거나 산하 위원회를 만드는 것, 기존의 한국선교연구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분야별 전문적인 선교 연구소들의 설립을 격려하고 기독교 대학이나 기독교 연구소들의 선교적 사명을 격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간 선교 지역 연구에 대한 필요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협력과 인식의 각성을 위해, 신학교 과정에서 선교 지역 연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재훈련 과정에서 선교 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한국 선교 리서치 보고 대회를 활성화하여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선교 지역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국 선교의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한국형 선교 모델의 개발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의 연구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선교 연구 주체들이 서구의 정보 분석력과 선교 현장의 정보 수집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구의 우수한 대학이나 대학원은 물론, 선교 현장의 대학이나 대학원과 연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연구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2) 종합적인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한국에서 선교 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종합적인 선교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적 선교 정보센터가 구축되게 되면 한국 선교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한국 선교계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선교 전략의 부재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선교사의 편중 배치, 선교 자원의 중복투자 문제, 선교 현장 선교사들 간 연합의 부재 등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선교 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한국 선교계의 선교단체와 교회, 그리고 각종 기독교단체들 간의 연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단체들 간의 사역에 관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 그쳤던 한국 선교계의 연합운동에 실제적인 정보의 흐름을 통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선교시스템의 구축은 한국 선교계를 거시적으로 통합하고 선교 현장과 후방을 연결하여 한국 선교계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세계 선교를 위한 많은 중보기도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현장의 실질적인 기도제목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선교 정보 네트워크는 선교 정보가 개별 단체나 교단, 교회, 선교단체의 차원에서 소규모로 정보를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는 수준을 넘어 고급 정보의 생산과 전문적인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급의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선교를 거시적 관점에서 연결하기 위하여 선교 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담당하는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바디(network-body)를 주축으로 고급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네트워크 바디는 선교 정보의 생산 기관인 대학과 연구소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연구 기관과, 생산된 정보를 각종 미디어 형태로 가공하여 전달(delivery)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급기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네트워크 바디는 중립성과 종합성을 가질 때 네트워킹이 지속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마민호, 2009: 14).²⁵⁾ 정보 생산의 역할을 담당

하는 연구기관이 선교 현장의 선교사와 국외 연구기관, 국내 단체들로부터 수집한 선교 정보를 맥락적 정보와 결합하여 고급의 정보로 발전 가공시키고, 이렇게 생산된 선교 정보를 보급기관인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유하거나 필요한 단체와 선교사에게 전달한다. 네트워크의 바디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진행해 오던 선교 정보의 생산과 공유를 집중적으로 결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적인 선교 정보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가동되면, 이를 통해 교단과 지역교회, 선교단체, 중보기도 단체들은 여기서 생산된 선교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선교 전략을 생산하고 기도의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검증되지 않은 채 부유하는 정보들에 대한 평가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선교 지역 정보와 선교 전략의 흐름을 통해 선교 현장과 선교 본부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3) 서구 선교 정보 네트워크와의 협력

앞에서 설명한 한국의 선교 정보 네트워크는 국내 수준을 벗어나 세계 각국의 정보 채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선교의 거시적 흐름과 함께하는 국제 동반자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앞서 KWMA와 GMS가 개별적으로 해외 정보 센터와 교류 협력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선교 정보 네트워크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그 영향력이 한국 선교 전체에 흘러가기는 어려웠다. 한국 선교는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수할 후발 주자로서 USCWM, IMB, Joshua Project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선교 정보와 전략을 번역하여 활용하거나 우리 상황에 맞게 재가공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선교의 과제, 한국 선교의 현황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국제적 선교 흐름에 편승하기 위한 노력을 더해야 한다. 그 동안 GMS가 한국 거점 기관으로 홀로 추진해 오던 세계 선교 운동인 FTT 등의 범세계적 선교 운동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교류 협력은 서구 단체의 입장에서조차 지금까지 한국의 선교적 성과 및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세계 선교의 연성힘 (soft

25) 네트워킹의 바디는 네트워킹 기관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경쟁적 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좋으며, 아울러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어떤 기관과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종합성을 가진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ower)은 서구 선교가 주도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그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인 2/3세계에 있는 선교센터와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정보의 순환을 가속해야 한다. 정보의 사실성과 현재성의 증대를 위해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나 단체, NGO나 기업 등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협력이 가능한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이들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채널은 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서구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구와 한국, 그리고 2/3세계의 선교 정보 센터가 원활한 협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4) 다양한 선교 지역 연구 인적 자원 활용

국내에서 서구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언어적, 지리적 이유에서 제약된다면, 이를 위해 서구에 있는 현지 한인교회, 한인 선교단체,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선교의 첫 수혜자였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는 한국 선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과문화(cross-culture)를 경험한 이들로 한국 선교계와 서구 선교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제복음주의학생운동으로 발전한 KOSTA의 경우, 한인 2세들의 선교 헌신을 동원하며 이에게 선교적 비전을 심어 주고 있는데, 실제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과 헌신의 영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역량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세계의 선교 정보를 번역하는 등 한국 선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선교사 자녀들은 2/3세계와의 선교 정보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2/3 세계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한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 선교의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자원이다. 이들을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 네트워크 구축의 주요 자원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전문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 교육을 통해 선교사 자녀들을 한국 선교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한국 선교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을 넘어 서구와 한국과 2/3세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각각의 주체들이 협력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

(5) 전문적 선교컨설팅 시스템 구축

선교 지역 연구를 통한 정보의 생산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컨설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교 지역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안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교 정보의 생산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통전적 선교와 성경적 지역 개발,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을 포함한 전략의 활용을 위하여 생산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자문 그룹이 필요하다. 최근 비즈니스 선교를 위하여 선교 정보생산기관과 기독교 기업인, 기독교 법률가와 컨설팅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CRN(Christian Resource Network) 그룹이 출범하였다. 이들은 선교 현장에서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 경제, 법률, 협상 등의 영역에서 다각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CRN 그룹과 같은 단체는 한국 선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전문성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컨설팅이 한국 선교의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²⁶⁾

또한 한국 선교는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선교현장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을 연결시키고 기능적으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전략적 선교 퍼실리테이터(Strategic Mission Facilitator)와 전략적 선교 코디네이터(Strategic Mission Coordinator)의 양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선교 퍼실리테이터와 코디네이터는 풍부한 경험과 정보력을 통해 선교 현장과 세계 선교를 구성하고 있는 현장과 교회, 선교단체 등 각 주체들의 성격과 상황을 잘 알아서 흠어져 있는 잠재 역량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증개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 선교의 상황 속에서 향후 한국 선교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양성되어야 할 선교 인재상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선교의 모든 부분과 주체들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일을 담당하

26) 박용미(2014), “GMS, 컨설팅 통해 새 도약 발판 마련”, 『기독신문』.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93> (검색일 2014. 05. 05)

여 한국과 세계 선교계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V. 맺음

이상에서 한국 선교계가 이루어 놓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선교 지역 연구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세계 선교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선교 지역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선교 지역 연구, 즉 선교 지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관리, 공유 그리고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교가 초기 선교지역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정보에 근거한 전략을 세웠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후 해외 선교 기관과의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해외 선교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90년대 이후부터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체적인 선교 정보의 생산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한국 선교 지역 연구와 선교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그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한국 선교계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교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선교 지역 연구는 한국의 선교계가 급속한 선교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합한 선교 전략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활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연구 영역이다. 선교 지역 연구는 단순히 선교 대상 지역과 선교 대상 종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각 정보 생산 기관을 비롯한 선교 단체, 교단들이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과 공유하며, 이러한 기관들이 정보를 현장의 필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선교 지역 연구의 담당자는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과 신학교의 교수나 연구원들만이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라 선교 현장의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선교단체, 교단, 교회의 선교관련 종사자, 그리고 이의 보급을 맡고 있는 언론기관까지 포괄해야 하며 선교 지역 연구는 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선교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선교 정보생산 기관과 기독교, 기독교법률가 단체, 기독교NGO, 기독교의료기관 등 모든 영역의 자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한다. 또, 한국 선교계가 선교 지역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효과적인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교계 뿐 아니라 서구의 선교 정보 관련기관과 2/3세계의 선교 정보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세계 선교에서 선교사 파송 2 위의 경성 힘(Hard Power)을 가진 한국 선교계가 활발한 선교 지역 연구를 통해 연성 힘(Soft Power)을 구비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선교의 강대국으로서 남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승삼 (2006). “한국장로교회 해외 선교의 역사적, 선교 정책적 분석연구.” 『신학지남』. 73(1). 116-138.
- 문상철 (2014). “권두연 : 선교적 리더십의 양성.” 『현대선교』. 16(4). 5-6.
- 김남식 (2002). “한국 교회 선교역사.” 『신학지남』. 69(3). 211-243.
- 김종남 (2010). “한국 선교의 첫걸음, 방지일 선교사를 만나다.” 『한국인 선교사』.
- 김준형 편저 (2004). 『세계화의 현상과 대응』. 서울: 일신사.
- 마민호 (2009).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의 한계와 극복 방안.” 『제2회 선교리서치대회 자료집』. 13-17.
- 문상철 (2010). “현장 리서치의 가능성과 한계와 발전방향.” 『한국 선교 KMQ』. 9(3). 통권 33. 8-18.
- 박영환 (2006). 『선교정책과 전략』. 서울: 도서출판 바울. 247-280
- 박용규 (1999). “한국의 해외 선교 - 복음주의적 고찰과 평가.” 『신학지남』. 66(1). 201-230.
- 이영철 (2010). “선교 현장 리서치와 선교 프로세스.” 『한국 선교 KMQ』. 9(3). 통권 33. 41-46.
- 이우윤 (2007). “중국 선교에 있어서의 전략적 모형의 개발과 유용성.” 『CUM-Q』. 총권 23. 15-20.
- 전재욱 (2001). “한국 선교이론과 실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22. 325-351.
- 조대연, 소성호 (2009). 『비영리단체 IT 및 지식경영 현장조사 보고서』. 포항 : 한동대학교.
- 조덕형 (2004). “사도바울의 전문인선교와 현대 전문인 선교단체 비교 연구: 인터콥을 중심으로.” 서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논문.
- 채은수 (1984). “한국 교회 해외 선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신학지남』. 51(2). 178-194.
- 최바울 (2008). “지난 25년의 한국 선교 전략 평가.” 『2008 한국 선교지도자포럼 핸드북』.
- 채홍범 (2002). “21세기 총회세계선교회의 정책에 대한 고찰과 전망.” 서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 한국일 (2004). “선교 120년과 한국 선교의 미래.” 『선교와 신학』. Vol.14. 109-142.
- 황홍렬 (2001). “한국 교회의 선교역사.”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회.
- IMB (2014). “Global Statu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Global Research.
- UPMA, “최후의 선교 분야: 전망 개척 선교.” 『미전도종족선교연대 소식지』. 1(1). 8-14.
- David J. Cho (2012). *The Mission -innovation from Westernization to De-Westernization and then Globalization*. Euiwang; East-West Center for Missions and Research & Development.
- 남원준 (2006). “선교전략회의(NCOWE IV) 결산.” 『교회연합신문』.

-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39178> (검색일: 2014. 05. 05).
박용미 (2014). “GMS, 컨설팅 통해 새 도약 발판 마련.” 『기독신문』 .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93> (검색일: 2014. 05. 05).
<http://www.acts.ac.kr/design/index.asp> . (검색일 2013. 04. 20).
<http://www.hapdong-lib.ac.kr/>. (검색일 2013. 04. 15).
<http://www.imb.org/globalresearch>. (검색일 2013. 04. 12).
<http://www.imb.org>. (검색일 2013. 04. 12).
<http://www.kwma.org/>. (검색일 2013. 04. 12) .
<http://library.pcts.ac.kr/>. (검색일 2013. 04 15).
<http://lib.chongshin.ac.kr/>. (검색일 2013. 04 15).
<http://library.kosin.ac.kr/>. (검색일 2013. 04 15).
<http://lib.acts.ac.kr/>. (검색일 2013. 04 15).
<http://www.missionfrontiers.org> . (검색일 2013. 04. 12).
http://public.imb.org/globalresearch/Documents/GSECOverviews/2014-04_GSEC_Overview.pdf. (검색일 2014. 05. 28).
<http://tim.or.kr>. (검색일 2013. 04. 20).
<http://www.uscwm.org>. (검색일 2013. 04. 12).
<http://www.ywamkorea.org>. (검색일 2013. 04. 20).

ABSTRACT

A Study of Developing Measures of Korean Mission Area Studies

Min-ho Ma (Handong Global University)

Since the spread of Christianity in South Korea, the Korean church has achieved phenomenal missionary outcomes. However, Korean missions also have lacked strategic mission evaluations. This absence of strategic mission is caused from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analyses resulting from the dearth of study and research of the mission field. Study and research of the mission field is essential for strategic mission. Dur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mission work, the Korean church conducted some study and research of the mission target area and people. The initial Korean mission proceeded under the principles derived by the research of mission area, but as Korean church rapidly expanded, the tendency to neglect research of mission activities developed as well. After the 1990s, as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mission gained recognition, research of the mission area and people revitalized and provided significant progress. Nevertheless, Korean mission work still depends on the personal insights and strategies of the field missionary, while the mission headquarters are still unable to provide necessary mission information or strategy to the field missionary. This is because of the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f the mission area, and also the insufficient environment for study and research, including the lack of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to conduct research of the mission field.

In order to develop Korean mission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understanding of mission area studies. Instead of making this area the responsibility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universities or theological schools, it must be embraced by many levels, starting from missionaries in field, mission organizations, Christian denominations, churches, mission-related workers in the church, and media organizations. This will also require the close cooperation of the full

range of those who use the research information, including Christian enterprises, Christian lawyer organizations, Christian NGOs, and Christian medical institutions. Also, it is vital to develop research infrastructure, including a research society studying mission target areas and peoples as well as academic journals that can facilitate the production of research and analysis. Finally, in order to build the mission research network for the effective conduct of mission area studies in Korean mission, cooperation of not only the Korean mission network but also the mission organizations of Western countries and of the 2/3 part of the world is needed.

Keywords: Korean mission history, Strategic mission, Mission area studies, Mission intelligence network

